

유럽연합, 스웨덴 알라사 독일 낙농조합 통합 승인

유럽연합은 최근 스웨덴과 덴마크의 낙농조합원 7천2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알라협동조합이 독일의 낙농조합인 한자조합을 통합하려는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독일 북부지역에서 1천여명의 조합원중 670여명이 집유하는 한자조합은 신선유와 장기보존 유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통합을 통해 유럽내 시장확대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유명한 로팩버터를 생산하는 알라사는 지난 '04년 네덜란드 내 최대 낙농조합인 캄피나사와도 통합을 한 바 있다.

(www.reuters.com 4월 1일자)

중국, 1천176개 유업체중 553개소 생산 중단 명령

중국 질량검사총국은 최근 중국 내 유제품을 생산하는 1천176개 유업체에 대한 생산인증검사에서 기준에 미달된 553개업체에 대해 생산허가를 취소하고 유제품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2008년 멜라민 분유파동으로 추락된 중국 유제품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 중 107개 업체는 품질기준 개선시 생산허가 재신청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 후 무허가 업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허가업체도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멜라민 파동이후 유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멜라민 등 첨가물의 모든 구매를 등록토록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xinhuanet.com 4월 2일자)

옥수수 가격 급등세 전망

옥수수 가격을 중심으로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세가 심상찮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미산 옥수수는 현물

로 운임료가 포함된 가격(C&F)이 지난 4월 11일 기준으로 톤당 385달러를 기록해 전월 평균 351달러 대비 9.7%가 올랐고 지난해 동월 229달러 보다 68.1%나 급등했다. 이는 미국 농무성(USDA)의 분기재고 보고서가 지난달 말 발표된 가운데 미국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대비 파종면적이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에탄올용과 사료용, 중국 등의 수요 급증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빠른 곡물수급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옥수수 가격은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감소 가격대인 톤당 393~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두와 대두박은 남미의 대두 수확에 따른 영향으로 강보험 내지는 약보험세를 형성, 미산 대두는 지난 11일 기준 톤당 592달러로 전월 평균 581달러 대비 1.9%, 전년 동월 444달러 대비 33.3%가 올랐고, 미산 대두박은 톤당 462달러로 전년 동월 396달러 대비 16.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300두 젖소목장 분뇨로 2천개 가정 전기공급

미국 메사추세츠주 한 젖소목장이 인근 목장과 함께 혐기성 발효조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 인근 2천여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300여두의 착유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 목장은 인근 농장들과 협력하여 젖소분뇨외에 음식물 찌꺼기 등을 발효시켜 전기를 생산할 예정인데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연소시키는 것은 물론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잔류물을 활용하여 우사 바닥재료와 비료를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이같은 계획을 구상한 목장주는 시설투자비로 25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정상가동시 월 2만달러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성에 따라 세금도 30%정도 면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ww.dairyherd.com 4월 4일자)

뉴질랜드, 국제 유제품 가격 고공 행진 지속 전망

뉴질랜드의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회사인 폰테라사는 최근 국제 유제품 가격 고공행진이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증가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내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량은 '08년에 비해 5배가 늘어 35만3천톤에 달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중국내 유제품 수요는 3천6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인도의 유제품 수요량도 자국 내 생산물량을 포함하여 연간 4천5백만톤에 달해 세계 최대 수요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유엔에서 조사한 국제 전지분유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톤당 4천958달러까지 상승하였는데 이같은 아시아 시장의 수요와 뉴질랜드 내 가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세계 유제품 무역거래량의 40%를 담당하는 폰테라사는 전 세계 140여개국에 130억달러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국제수요 증가를 감안 중국내 대규모 목장을 지속매입하고 인도와 남미에 목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ww.bloomberg.com 4월 8일자)

중국, 대형유업체 유제품 가격 대폭인상

중국 대형 유업체인 명유유업과 내몽고 이리유업이 유대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재 중국 내 원유가격은 상해지역 기준으로 1kg당 3,24유안에서 3,59유안으로 인상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아이스크림가격은 베이징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10%에서 50%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가격인상은 최근 중국정부의 유업체 규제강화로 많은 유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제품이 부족된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설탕가격 등 원자재 가격인상도 이들 유업체의 경영비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

는데 명유유업의 수익률은 '09년 26.7%에서 지난해 25.7%로 떨어졌으며, 이리유업의 수익률은 전년대비 8.5%가 줄어든 28%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www.capitalvue.com 4월 15일자)

싱가포르, 대형투자사 대규모 호주 낙농목장 매입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덕스턴 자산운용사가 최근 호주내 7개 대형낙농목장을 1천62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독일계 도이체 아시아퍼시픽사가 일부 지분참여하고 있는 동사는 전세계에 약 9만 헥타르의 농장을 매입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낙농 목장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호주내 목장 매입은 대형할인매장의 우유 가격 할인 경쟁으로 시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농업이 매력적인 투자분야이며 세계적으로 농업분야에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이번에 매각된 목장이 위치한 호주 빅토리아주는 생산된 우유가 주로 수출되어 호주 내 우유가격 유동성과는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sl.farmonline.com.au 4월 11일자)

호주, 낙농가 젖소 암소에 발허서 사망

호주 낙농가가 갑자기 달려든 젖소 암소에 발허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올해 60세인 이 낙농가는 발허후 울타리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는데 복부와 가슴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이틀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멜버른 수의과 대학 전문가들은 암소에 발허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발생할수 있다며 소 운동장에서 작업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암소가 송아지와 같이 있을때나

암소를 무리에서 떼어 놓으려 할 때 암소들이 달려들 수 있다며 몸무게 500kg에서 700kg의 소를 축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는 항상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www.heraldsun.com.au 4월 13일자)

미국, 우유저장 탱크 오염 규제 대상에서 제외 확정

미국 환경청은 최근 낙농목장의 우유저장 탱크를 오염배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조선이나 석유운반차량처럼 외부 유출시 오염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설은 운영자가 사전에 배출방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왔는데 동물성 지방 저장 시설도 포함되어 우유저장 탱크의 포함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낙농가 단체들은 지난 2년간 우유 저장탱크는 별도의 위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이 법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번에 이같은 입장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www.reuters.com 4월 13일자)

중국인들, 뉴질랜드서 분유 싹쓸이 쇼핑

중국인 관광객들이 뉴질랜드 슈퍼마켓에서 분유를 싹쓸이 쇼핑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오클랜드 공항 부근 슈퍼마켓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쇼핑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분유 진열대로 달려간다고 4월 20일 전했다.

또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중국인 수출업자에게 한꺼번에 17만 달러어치의 분유를 팔면서도 현지 주민들에게는 한 번에 최고 두 통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

해 불만을 사고 있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오클랜드 공항 부근에 있는 한 슈퍼마켓 고객들은 매주 아기 분유를 사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슈퍼마켓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객은 관광 가이드를 따라서 들어온 40여명의 단체 관광객들이 곧바로 분유 진열대로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분유 진열대가 텅텅 비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내 딸이 막 분유를 떼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근에 사는 다른 부모들은 분유를 사기 위해 먼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로 인해 일부 오클랜드 주민들은 아기 분유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엄마는 특정한 상표의 분유를 사기 위해 가게를 찾았으나 살 수가 없었다면서 네 군데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들을 뒤지고 다녔다고 말했다. 3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다른 엄마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분유가 3주째 떨어져 다른 곳까지 가서 분유를 사왔으며 나중에 동네 슈퍼마켓에도 분유가 들어왔으나 한 꺼번에 분유를 두 통 이상 살 경우 한 통에 3달러씩을 더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다. 한 사람에게 두 통씩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해야 우리도 고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신문은 중국인 수출업자가 사가는 분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부모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런 분유 대량 거래는 뉴질랜드 수출 당국도 모르고 있다가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분유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외국산 분유를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